

교권 침해, 적극 대응한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현장 제정,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이 달 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칭)경기교권보호현장'을 제정해 발표하고, 교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들에 대한 구제 및 보호장치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던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이 연구팀(팀장. 강병숙 배재대 교수)과 함께 실시한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현장 제정'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구팀이 자체 실시한 설문에서 경기도 교원의 95.7%가 교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구제 및 보호 장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응답교원의 51%가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및 보완을 꼽았으며 19.5%는 교원들의 교권수호 노력을 꼽았다. 응답 교원의 73.9%는 교권 침해 발생의 주된 원인을 교권 경시 풍조라고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88.9%의 교원들이 교육청내에 교권보호 전담 기구와 인력이 배치되기를 희망했다. 특히 교권 보장에 대한 연수를 단 1회도 받지 않은 교원이 70% 가까이 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현장 제정'에 관한 연구의 하나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내 1천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현장 제정'에 관해 전문가 자문, 교사

집단 심층 면담, 외국 사례 등을 연구해 왔으며 2월 1일 중간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여론수렴을 거쳐 이 달 안에 전국 최초로 '(가칭)경기교권의 보호현장'을 제정, 발표할 예정이며 아울러 교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가칭)경기교권보호현장'에는 교원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권 관련 교육 및 연수 의무화, 교권 침해 원인을 해결, 피해 교원 구제 전담기구와 인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의 여러 주체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권리 보장 및 조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 교육주체의 상호 권리보장 및 신뢰회복을 위한 공동의 의지

도 함께 천명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4일 광명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권 침해는 수업권 침해로 연결되어 결국 학교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게 된다"고 하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권리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교육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권보호현장 제정과 교권침해 대응매뉴얼 제작에 대해 "교사가 교육 외적인 부담을 공격으로부터 교육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사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청과 학교가 신속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 안전망 구축계획을 마련하고 교권침해 전용 창구인 '선생님지킴이'를 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에 마련·운영하고 있다.

김래승 기자 kls@eduyonhap.com

농산어촌 돌봄학교 집중 투자

인천시교육청, '교복투' 등에 54억 8천만원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0년 교육취약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적 성취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과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에 54억8천8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47억7천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8개 행정구역의 유·초·중 79개기관에서 1만250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되며, '농산어촌 연

중 돌봄학교' 사업은 강화, 옹진 군 2개 농어촌지역의 초·중 9교에서 7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790명의 학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인천의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복지 수혜계층의 폭을 넓히고 지역 간, 학교 간 차이를 보정함으로써 균형있는 교육복지정책이 펼쳐진다.

이는 계층구조 약화현상이 교육의 계층 대물림 현상과 연결되어 부모 세대의 계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로 대처하고 도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 발달함은 물론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아름다운 선율

학익여고, 하르모니아 정기 연주회

인천 학익여자고등학교(교장 김규수)에서는 지난달 30일 예연관(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하르모니아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학익여고 음악 동아리인 하르모니아는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해마다 정기 연주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음악적 재능을 뽐내는 물론 그동안의 노력을 통하여 변화된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정기 연주회는 총 3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는 'Eine Kleine Nacht musik 1악장' - Mozart를 비롯하여 11곡이 연주되었고, 2부에서는 현곡 스틱 OST의 3곡이 연주되었으며, 3부에서는 달의 왈츠(드라마 로비스트 OST) 등 3곡이 합동 연주됐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기 연주

회였으나 앞날 준비와 수준 있는 연주에 참석자 모두로부터 많은 격려와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규수 교장은 "학익여자고등학교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하르모니아가 있어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학익여자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인천 서부교육청 사회복지시설 사랑 나눔 행사

인천 서부교육청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3일 관내 독거노인 요양원을 위문했다.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독거노인 복지 시설인 낙원양로원을 찾은 이상철 교육장 등 서부교육청 간부 5명은 백미, 화장지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요양원 관계자 및 독거노인을 위문했다.

요양원 한영옥 원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시설에서 불편함이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서부교육청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찾아오는 명절마다 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사회 복지시설 위문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과 소외 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다.

김내경 기자 kny@eduyonhap.com

인천시교육청 교육재정효율화 으뜸학교 평가

인천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하여 우수학교에 대해 포상하는 '2010년도 교육재정효율화 으뜸학교 평가'를 올 상반기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년도 평가 결과, 각급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정운영 효율성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크게 향상되어 사업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2010년도 평가는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경제위기와 물가상승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외부재원 유치, 소모성경비 절감 등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학교에 예산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학교간 긍정적인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평가의 주요 내용은 재정확보 노력도,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집행 효율성, 재정운영 투명성 등 4개 분야의 9개 항목으로, 항목별 평가지표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최우수 3교, 우수 6교, 장려 9교 등 총 18개의 학교를 선정하며, 선정된 학교에는 총 1억8천9백만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인천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정규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이달 17일부터 영역별로

인천평생학습관(관장 한덕중)은 인천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월 8일 '2010년 상반기 정규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4개의 영역에서 총 7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이달 17일부터 영역별로 수강생 모집을 실시한다.

직업능력개발 교육영역은 피부미용사의 17개의 자격증 취득과정과 강좌별 자격요건을 둔 독서치료 심화과정 등 3개의 전문능력 향상과정이 있으며 이달 17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만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실버교육영역은 동화구연교실 외 17개 강좌와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압검정교실 외 3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달 19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방문신청 후 추첨을 실시하여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역사회어울림 교육영역은 장애인복지센터나 인천지역의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장애인 운동교실 등 9개의 찾아가는 교실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대상의 한국어교실 등 5개 강좌, 장애가족 대상의 도예교실이 실시되며 수강생은 방문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민문화 교육영역은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요리공작소

의 4개 프로그램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확홍스쿨 외 9개 프로그램이 있으며, 2월 18일(목)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부서의 김오복 운영부장은 우리 평생학습관의 정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천시민 누구나 평생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 했다.

기타 자세한 교육내용은 학습관 홈페이지(www.il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학습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평생학습상담실(032)899-1571~2)에서 방문 및 전화로 상담가능하며, 학습상담뿐 아니라 직업상담사를 통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과 연계한 취업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김내경 기자 kny@eduyonhap.com

인천구월중, 구본준 학생 국가대표로

국제청소년과학창의대회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교육지원단 및 한국정보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제1회 국제청소년과학창의대회(KISEF)'이 지난달 28-29일 양일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인 ISEF(International Science & Engineering Fair) 참가자 선발을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121개 작품이 출품됐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원장 정갑순)은 전국과학전람회



에서 두각을 나타낸 2점을 출품하여 '조상들이 탭자나무(Poncirus trifoliata Rafin)복체를 선호한 비밀은 무엇일까?'를 출품한 인천 구월중학교 3학년 구본준 학생이 국가 대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차

지했다. 구본준 학생은 5월 9-14일에 미국 산호세에서 개최되는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 출품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품한 학생들과 과학창의력 기량을 겨루게 된다.

고객과 함께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겠습니다

01 프렌딩 파트너의 역할

- 각종 사무기기류 유지보수 및 A/S
-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류 판매
- 핵심인력

02 조달담당 파트너의 역할

- 각종 특별심의 전산조달담당
- 프로젝트 및 행정기기, 용량 설비공사
- 전자발판, 문서세탁기

03 불용품 처리 파트너의 역할

- 불용품물의 불용처리 업체담당
- 각종 서류 처리까지 알뜰히 해결

불용처리 및 조달담당 관련 수거사업의 고객의 기본 정보수출을 받기까지 전자발판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전산기기의 효율적 배려에 의한 재활용 가능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원의 부족하고 폐기물처리 수거비용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대한 최선의 책임과 의무를 통해 부족한 나라의 자원을 절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